

35장. 엘리후의 세 번째 이야기

1. 하나님 앞에서 의와 악의 의미 (35:1-8)

엘리후는 욥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강하게 반박한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하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사람이 의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둘째,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사람의 악과 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이다.

2. 하나님은 헛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35:9-16)

세상에서 압제를 받는 사람이 부르짖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악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대한 시비를 구분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욥은 헛되게 입을 열어서 지식이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35:14-16).